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 전시·공연 등으로 풍성하게

- 3. 22.~8. 24. 개관 10주년 첫 전시, 트로트로 도시의 삶 재해석한 ‘애호가 편지’ 개최
- 지역작가 초대전, 미디어 판소리극, 아시아 연출가 3인의 이야기 등 전시와 공연 이어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김상욱, 이하 에이시스(ACC)]과 함께 다양한 전시와 공연으로 에이시스(ACC) 개관 10주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그 첫 번째 전시로 3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복합전시 2관에서 트로트로 도시의 삶을 재해석한 ‘애호가 편지’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형 미디어아트 전시 ‘에이시스(ACC) 미래운동회(4월)’, ‘에이시스(ACC) 지역작가 초대전-이이남의 산수극장(4월)’ 등 전시와 레퍼토리 공연 ‘나는 광주에 없었다(5월)’, 미디어 판소리극 홍보가 ‘제비노정기(10월)’, 아시아 연출가 3인의 이야기 ‘아시아 연출가 3부작(11월)’ 등의 공연이 12월까지 이어진다. 10월에는 에이시스(ACC) 아시아문화박물관이 마련한 특별전시(The Next Steppe, 초원의 바람)가 시민과 만난다. 개관 10주년 전시와 공연은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에이시스(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애호가의 편지’, 트로트에 담긴 도시민의 모습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 위로,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캐나다 등 5개국 작가 참여

‘애호가 편지’는 트로트에서 드러나는 도시 풍경과 감각을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다.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캐나다 등 5개국 작가 13개 팀이 2개의 주제로 나눠 작품 총 14종을 선보인다. 첫 번째 주제인 ‘트로트와 도시 소리 풍경’에서는 한 세기 넘게 사랑받으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온전히 담은 대중음악으로 자리 잡은 트로트에 담긴 도시민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두 번째 주제인 ‘경계를 넘나드는 아시아 뿔뿔’에서는 트로트와 유사한 정서와 형식을 보이는 아시아의 대중음악과 연계된 문화를 조망한다. 동작 예술(키네틱) 설치, 상호작용 영상, 로봇 등 다양한 기술과 매체로 표현한

작품들을 통해 도시 속 투박하고 지난한 도시민의 삶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위로한다.

작품과 연계한 아카이브 전시 2종도 함께 열린다. ▲‘에이시시(ACC) 아카이브: 아시아의 대중음악 컬렉션’에서는 에이시시(ACC)가 수집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등 아시아 4개국의 대중음악 중 트로트와 유사한 감성과 형식을 지닌 노래를 소개한다. ▲국내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닌 음반사인 오아시스레코드와 협업한 ‘오아시스레코드로 보는 트로트의 역사와 변천’에서는 오아시스레코드가 보유한 트로트 음반과 관련 자료를 살펴본다. 주현미, 김연자 등 유명 트로트 가수들의 초창기 계약서와 1970년대 심의서 등을 만나볼 수 있다.

3월 21일 개막식 개최, 전시 기간 트로트와 각설 공연 등도 펼쳐져

‘애호가 편지’ 개막식은 3월 21일에 열린다. 참여 작가 메이와텐키와 이박사가 복합전시2관 중앙홀에서 축하공연 ‘메카 트로트’를 선보인다. 5월 4일과 5일에는 난장 각설이 ‘오동팔’과 테크노 각설이 ‘디제이(DJ) 섯시’가 ‘죽지 않고 또 왔네’ 공연을 펼친다. 각설이 품바의 옛가위와 대북 연주, 전자음악 디제잉 협연을 통해 오랜 전통을 지닌 서민 문화지만 주목받지 못한 이야기에 집중한다.

에이시시(ACC) 김상욱 전당장 직무대리는 “이제는 세대 구분 없이 사랑받는 장르가 된 트로트라는 친숙한 소재를 통해 관람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려고 한다.”라며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재해석한 트로트와 아시아의 뽕짝을 전시로 즐기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애호가 편지’ 전시 개요
- 2. ‘애호가 편지’ 홍보물
- 3. 에이시시(ACC) 개관 10주년 주요 프로그램 목록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단장	부이사관	이선영 (044-203-2611)
		부단장	서기관	이준협 (044-203-2341)
담당 부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기획과	책임자	연구관	김지하 (062-601-4425)
		담당자	학예연구사	김혜현 (062-601-4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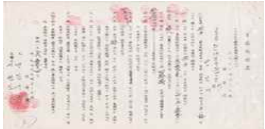

붙임1 '애호가 편지' 전시 개요

□ 전시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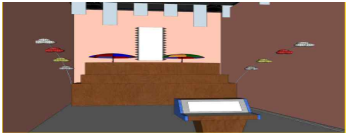



- 전시기간: 2025. 3. 22.(토)~8. 24.(일)
- 전시장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전시2관
- 전시주제: 트로트와 아시아 대중음악이 표상하는 도시문화
- 참여작가: 끈끄릿 짜안빠니드난, 로베르토 산타구이다, 모과, 모이 쩐, 모크 하슬룰 & 앙가 칩타, 메이와 덴키, 맹꽁이 서당, 박미라, 빠키, 신시가지, 윤결, 일렉트로니코스 판타스티코스, 테크노 각설이

□ 세부내용

- 전시구성

구성	세부내용	관련 이미지
작품 전시(14종)	전시주제를 기반으로 하는 작품 전시 ①트로트와 도시 소리 풍경 (9종) ②경계를 넘나드는 아시아 뽕짝 (5종)	
오아시스레코드 아카이브 전시	현존하는 국내 레코드사 중 가장 오래된 오아시스레코드에서 발매한 트로트 음반 및 관련 자료 전시	
ACC 아카이브: 아시아의 대중음악 컬렉션	ACC 아카이브 중 「아시아의 대중음악」 컬렉션에서 선별한 아시아 4개국의 대중음악 감상	

- 참여작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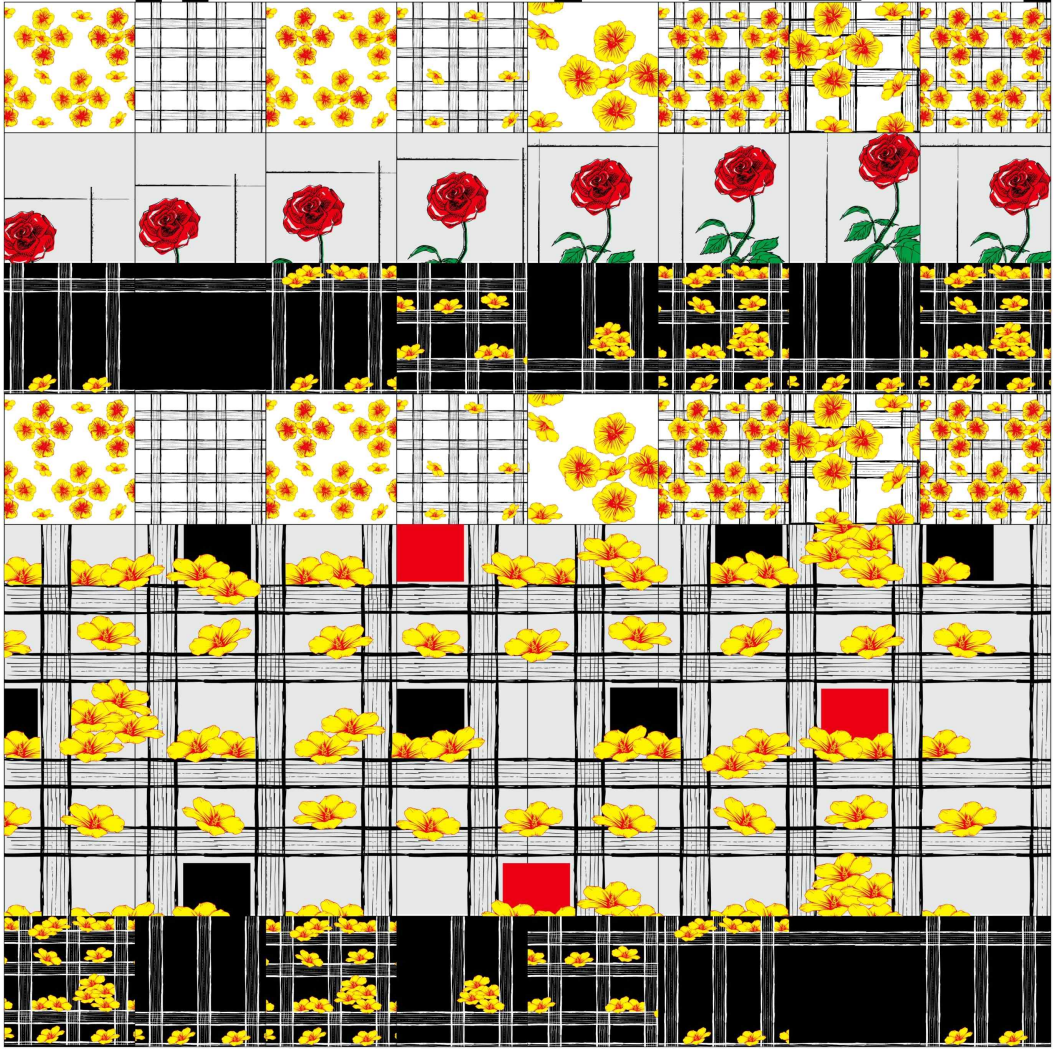
주제	작가명	작품명	내용	작품이미지
트로트와 도시 소리 풍경	테크노 각설이	트랜스로컬 댄스 마차	한국의 트로트와 아시아 뽕짝의 크로스오버	
	빠키	딴따라-딴따	촌스러움과 익숙함, 새로움의 경계에서 발견하는 미학	
	맹꽁이 서당	변 천사 별곡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트로트 조류	
	박미라	무시로	일상에 깃든 히로애락의 정서들	

주제	작가명	작품명	내용	작품이미지
	윤결	소릿귀가 열린다	역사에서 배제된 도시의 소리들	
	메이와덴키	메카 트로트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변형되는 서민의 문화 양식	
	모과	짜의 기본	어른들의 뽕짝과 청년들의 전자음악	
	신시가지	비문증	도시 속 소외된 노인들의 문화	
경계를 넘나드는 아시아 뽕짝	끈꼬릿 짜안삐니드난	항구 도시 블루스	항구를 통해 유입되어 스며든 대중음악	
	일렉트로니코스 판타스티코스!	전자 선풍기 하프: 빛과 그림자의 음계	흥과 애환의 정서	
	모크 하슬룰 & 앙가 칩타	다이렉트#1 조깅 당뒸	정서적 표출과 해방	
	모이 썬	볼레로 효과	치유와 연대의 노래	
	로베르토 산타구이다	30,528일	지역과 세대를 넘어서는 회복의 노래	

2025. 3. 22.
8. 24.

Fan Letter


애호가 편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전시2관 ACC Creation, Space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 38 Munhwajeondang-ro, Dong-gu, Gwangju 61485, Republic of Korea

T. 1899-5566
www.acc.go.kr



붙임3

ACC 개관 10주년 주요 프로그램 목록

시기	프로그램명
3월	[전시] 아시아 대중음악이 표상하는 도시문화 전시 <애호가 편지>
4월	[전시] 신체활동 및 시민 참여형 미디어아트 전시 <ACC 미래운동회>
	[전시] ACC 지역작가 초대전시 <이이남의 산수극장>
	[전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참여 전시 <우리의 몸에는 타인이 깃든다>
5월	[공연] ACC 5월 레퍼토리 공연 <나는 광주에 없었다>
	[재단 공연] 10주년 기념 특별 공연 <The Pulse>
7월	[전시]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동시대 현안에 초점을 맞춘 전시 ACC 포커스 <료지 이케다>
	[재단 전시] 10주년 특별전시 <뉴욕의 거장들 잭슨 폴록,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
9월	[전시] 민주·인권·교류 가치 기조의 대규모 기획전시 <봄의 선언>
10월	[공연] 현대적 기법, 장치로 재해석한 '미디어 판소리극 홍보가' <제비노정기>
	[특별전] 박물관 기획전시실 구축 및 특별전시 <The Next Steppe, 초원의 바람>
	[재단 공연] <모두의 전당> 10주년 기념 야외 공연
11월	[공연] 아시아 연출가 3인의 문화해석이 담긴 유니버스식 작품 <아시아 연출가 3부작>
	[재단 전시] 개관 10주년 어린이 특별전시 <판타지 인벤토리>
12월	[전시] ACC 주제전시 <테크네의 춤> - 상호작용예술 기획전시
	[전시] 아시아 로컬리티를 재조명하는 전시 <말과 그림과 역사라는 이미지>